

**2021년 3월 24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24(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3. 23.(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담당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서길원 과장(044-203-4340)	담 당 자	김상호 사무관(044-203-4342)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김준동 팀장(044-202-6150)		황선영 사무관(044-202-6152)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이창기 과장(044-201-3847)		이정규 사무관(044-201-3852)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한철 과장(02-3150-2053)		이창민 경정(02-3150-2751)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식 출범 -

- 27년까지 총 1.1조원 투입 융합형 Lv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목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4개 부처는 3.24(수),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함
 - 이 날 출범식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 및 최진우 사업단장, 사업단 이사진,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자율주행 관계자 3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는 '21년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됨

* (사업단장) 최진우 前 현대기아차 PM담당(전문급)

-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①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②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③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7년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으로

* (융합형 Lv4+) Lv4는 특정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 →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바,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현

-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④서비스 창출 및 ⑤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 올해 사업은 지난 1.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총 851억원)를 이미 공고 하였으며,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개요

- ◇ (사업목표) '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 (사업기간 및 규모) '21~'27년 / 총사업비 1조 974억원(국비 8,320억 원)
- ◇ (사업내용) 5대 분야, 총 84개 세부과제 지원 예정
 - 5대 분야 :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④자율주행 서비스, ⑤자율주행 생태계

□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 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하였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김상호 사무관(☎044-203-43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선영 사무관(☎ 044-202-6152), 국토교통부 이정규 사무관(☎ 044-201-3852), 경찰청 이창민 경정(☎ 02-3150-2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1. 3. 24.(수) 10:30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회관 건물 내 2층 입주

□ (참석) 산업부 차관, 과기·국토부 실장, 경찰청 국장, 전문기관 원장, 사업단 이사진, 자동차협회 회장, 자동차조합 이사장 등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추진

□ (주요내용) ①출범식(경과보고→축하말씀→사업단 소개 및 운영계획), ②현판 제막식, ③사업단 창립이사회

2. 세부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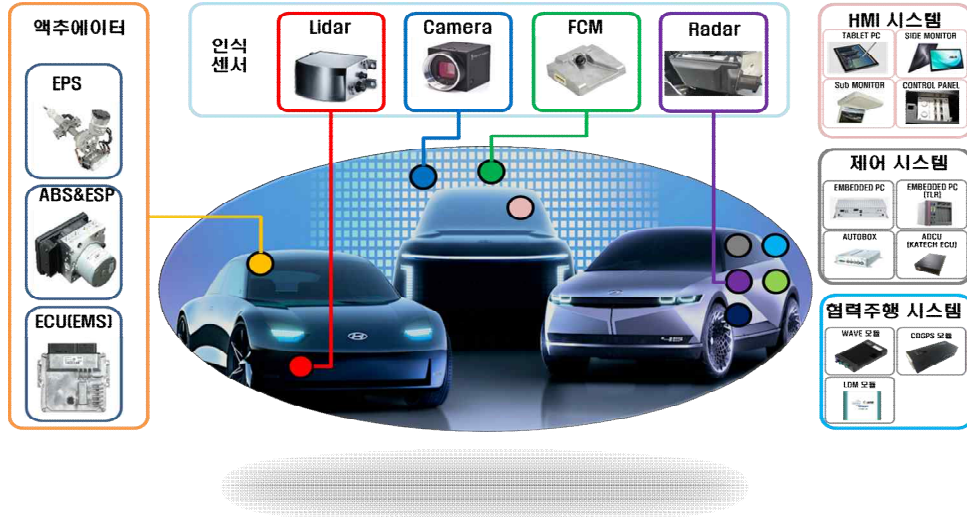
* 현판 제막식까지 공개

구분	시 간	세 부 일 정	비고
출범식	10:30~10:33	'3 ■ 경과 보고 (사업단장)	자동차회관 지하 대강당
	10:33~10:46	'13 ■ 축하말씀 - 산업→과기→국토→경찰	
	10:46~10:55	'9 ■ 사업단 소개 및 운영계획 (사업단장)	
제막식	10:55~11:05	'10 ■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 부처(4), 사업단장,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자동차회관 1층
이사회	11:10~12:00	'50 ■ 창립 이사회 * 안건 : 이사장 호선, '21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결	자동차회관 6층 대회의실

붙임2

자율주행차의 개념 및 기술 구분

- ① (개념)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② (기술구분) 운전 자동화 단계를 6단계(Lv.0 ~ Lv.5)로 구분(SAE, 美자동차 공학회)하며, Lv.3 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

<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

레벨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자동화 항목	없음(경고 등)	조향 or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 필요, 제어권 전환 시만 잡을 필요)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시장 현황	대부분 완성차 양산	대부분 완성차 양산	7~8개 완성차 양산	1~2개 완성차 양산	3~4개 벤처 생산	없음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